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신년감사주일 New Year Thanksgiving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아침 해가 돋을 때(찬358/새552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강오 장로 2부/정광목 장로 3부/이길수 장로 4부/박세환 장로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Come and See 50(박재형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추예준(Brayden) 3부/이온유(Bennett)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나(Jonah) 3:1-10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2:1-12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

-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5) 첫 표적: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우릴 사용하소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2026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첫날에 주신 은혜

Grace Given on the First Da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작년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가까운, 지난주 저의 연약함을 성도들과 나누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서, 그것도 성탄절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하며, 저는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폐암이라는 최종 검진 결과를 받기까지 지난 10개월 가까이 보내온 세월이 참으로 길고 인내하며 걸어왔던 길이었습니 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널뛰기를 했던 저의 불안했던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새벽기도를 열었는데, 특히 지난 한 해는 더욱 간절해진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성탄주일예배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오르던 계단에서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목사님, 재검을 했는데, 재발한 암이 말기입니다. 그런데 수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초조한 시간을 보내셨을까 느껴져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근심을 더할까 봐 한동안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침 폐암을 앓으셨던 동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시면서, 수술 받는 날 기도하는 성도들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은 완치되었다 하시며 기도 부탁을 하라 권고하셔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로 결심했는데, 마침 준비된 설교 내용이 메시지가 되어 저의 연약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후, 쏟아지는 성도님들의 기도 응원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특별히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마지막 주일에 주신 고난의 빗소리가 첫 주일에는 은혜의 빗소리로 내리는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섭리와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목적 없는 아픔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나올 것을 믿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회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합니다. 강단 초청을 받은 분들마다 겸허히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오듯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와 새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회년의 기쁨이 베델 교회에 온전히 임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될 것을 믿습니다.

Last Sunday, too close to call it last year, I shared my illness and asked for your prayers. As I stood on the cusp of a year's end, announcing the gift received on Christmas, I experienced infinite humbleness. Until I was diagnosed with lung cancer, this past 10 months has been very long, requiring much perseverance. Doctor's each word and his expressions touched me heavily. State of my heart was like a seesaw, waiting for diagnosis. It was a time of weighing in my faith before God. I always open each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with prayers for our congregation, especially for patients. I prayed more earnestly for them this past year. After Christmas Day worship, as I was climbing stairs to my office, a deaconess stopped me. What she said still aches my heart. "Pastor, I was re-examined, and the cancer has returned. It is now in its terminal stage. I decided not to have surgery." Tears rolled down my eyes. Putting my hand on her, I prayed. Feeling how anxious she must have been, I prayed more earnestly.

I needed to share my prayer request, but I worried for a while thinking that a pastor should alleviate the worries from congregation and not add. I remembered a fellow pastor who had a lung cancer and called him. He experienced much grace from prayers of his congregation. On the day of his surgery, he even saw a vision of his congregation praying. He said he is completely healed due to those prayers. He encouraged me to share with the congregation. As I was preparing the Sunday message, I decided to share. Content of the message I was preparing gave a segway to share my illness. After my prayer request, encouragements are pouring in. I can already feel your prayers. As we begin Elijah Early Morning Prayer, I can come to the place of prayer with more earnest heart. Last Lord's Day's message on sound of rain of suffering is like the gift of sound of rain of grace on this first Lord's Day. I believe in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ere is no suffering without reason, and no pain without purpose. Because this is a gift from God, I believe His will will be done. If it is God's will, I believe I will be healed. But before my healing, please pray for God's greater will be done.

I humbly long for grace of the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worships. Each person, who are invited to stage for pulpit prayer, please prepare your hearts humbly. May you come humbly on your knees with repenting hearts. I believe that the joy of our jubilee year,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will fully descend upon Bethel Church, and mark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신년감사주일예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

(욘 3:1-10)

1. 니스웨 성읍에 일어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본문을 읽고 한국 평양대부흥 때 일어났던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4-9절)

2. 이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2절, 참고/창 12:1-2, 마 28:18-20)

3. 왜 하나님의 복음은 cross-cultural(다문화적)이어야 합니까? 참고구절을 읽고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참고/ 렘29:4-7)

4.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1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셀식구들과 나눠 보십시오.

■ 적용찬양: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우릴 사용하소서

적용하기



신년 특집
새해 결심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도폭발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선영 권사

베델교회의 50주년이라는 발자취 속에서 함께 걸어온 나의 신앙 여정을 감사드립니다. 묵은 마음을 기도로 기경하고(호10:12), 베델 공동체와 가정, 자녀들 위에 비처럼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더욱 겸손히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소연 권사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동안 보아온 선배 권사님들의 섬김의 뿌리를 따라 섬기기를 원하며, 훈련 시간 동안 내 마음 안의 불순물을 제하고 두 마음을 품으려 하며, 딱딱해져가는 믿음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은영 권사

Come & See. 고요한 부르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내며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걸어가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정보미 집사

2026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붓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 어디서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선숙 권사

2025년도에는 식당 사역을 맡아 몸으로 섬겼습니다. 내년에는 육체적 노동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2026년을 맞이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1시간은 저희 100%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받은 은혜로 주위에 베풀며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김인규 장로

땅을 경작하다, 단을 썰다, 섬기다를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아바드'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품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기뻐하시는 아바드, 곧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바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김백열 장로

2026년에는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알게 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변명보다 '주님, 제가 바뀌겠습니다'라는 자복의 마음으로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홍혜정 권사

2026년 베델 주제가

Come and See 50

작사: 김한요
작곡: 김도현

베델교회 반세기의 역사를 묵상하는데 희년의 기쁨과 소망이 떠오르며, 어떠한 지난날의 아픔도 새롭게 써 가실 하나님의 역사의 새 출발이 될 것을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양탄자 뒷모습 같이 뒤엉켜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놓아진 하나님의 작품, 베델 50년은 'Come & See'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세기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작사했습니다.

김한요 담임목사

1. 지 금까 지 내온-것 은 하나 님의 크신 은혜 라 아픈
 한숨 이- 감 사가 되 고 눈물 의 고 난 이 찬 송이 되 게 하 신하 나 님- 2. 신
 실 하 신 우 리 주 하 나 님 지 난 세 월 동 안 함 께 하 셧 네 눈 부
 시 도 록- 찬 란 했 던 날 도 어 둠 고 호 린 날 에 도 주 님 은 항 상
 함 께 하 셧 네 Come and see - Come and see - 베 델 에 임 하 신- 주 의
 영 광 을 보 네 - 우 름 부 르 시 고- 이 땅 에 세 우 셧 네 - 주 행 한 일- 선 포 하 게 하- 셧 네
 Come and see 2. 신 see - Come and see - 베
 델 에 임 하 신- 주 뜻 이 뫼 지- 리 라 - 주 의 사 랑 행- 하 고 - 주 의
 진 리 전- 하 리 - 희 년 의 기 뻐 을- 베 델 의 영 광 을 Come and
 델 의 영 광 을 Come and see Come and see! Come and see!

인터뷰

담임목사 신년 대담

50대다운 신앙의 뿌리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베델 성도들은 늘 그렇듯이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로 시작합니다. 또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와 새벽부흥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닮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행한 일 가운데 다시 주저 없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초대하고 계신 일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딱히 해 보고 싶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없고, 좋게 표현하면 야망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소망부에 오케스트라가 시작된 것은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믿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사역이라 믿어져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베델교회로, 엘비안만 섬기는 로컬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섬기며 디아스포라 사역을 펼쳐가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세우고 다음 50년에 포석을 둔 베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가슴 벅찬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베델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며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5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입니다. 어느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입니다. 제 작년 동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초대 목사님의 아드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델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Come & See'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기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은혜였음을 믿었습니다. 새해는 그 은혜를 맘껏 누리게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목사님께서 직접 주제곡 가사를 쓰셨는데요,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사 의미는 글 그대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50년 세월을 뒤돌아보며 아픈 한숨이 감사가 되고, 눈물의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Come & See'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한인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하여 내일의 선교를 함께 나누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달려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목회자이자 강력한 설교자로서 활동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상기시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올해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나의 나 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력한 설교자인지는 모르지만, 성실히 말씀을 강해하려고 말씀을 연구하여 전하는 목회자는 맞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게 해 주셔서, 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매일 자신을 확인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하루도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Come & See'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기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은혜였음을
믿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베델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온 베델이 또 다른 50년을 향해 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50대답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충만함 속에 사십시다. 커피 한 잔도 누구와 마시느냐가 그 맛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매 시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살채플
새해 결심

더 섬기고 순종하는 셀목자

셀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셀식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그 기쁨과 감사를 이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셀목자는 은혜의 자리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에스더

지난해를 돌아보며 많은 사역에 동참했음을 기억합니다. 제 의지나 열심을 세고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교회와 목회진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신영록 집사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셀목자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살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순종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윤세희

셀목자 자리는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섬겼을 때, 내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열었고, 저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현

2025년은 많은 사랑을 누렸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한 해였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살에서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필요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 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유진 집사

사역 팀장 명단 및 부서장 모임 안내

2026년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의 섬김을 기대합니다. 사역 박람회(MOD) 준비와 전반적인 재정 사용에 관한 공지를 위한 프로젝트 팀장 상견례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월 14일(수) 수요저녁예배 후 ▶ 장소: 본당



■ 실행위원:

- 담임목사 - 김한요 목사
- 행정목사 - 주성필 목사
- 총무 - 김 샘 장로
- 예살 - 박세환 장로
- 성례 - 박재문 장로
- 수양관 - 김태원 장로
- 엘새 - 이강오 장로
- 50주년 추수감사(B2B) - 김인규 장로
- 카페 - 이종선 장로
- 식당 - 이해원 장로
- MIT - 김재훈 장로
- 새가족 - 석승진 장로
- 금다식 - 박성남 장로
- 선교: 행사 - 김응진 집사
- 수요예배 - 조광중 집사
- 재정 - 유형석 집사
- 전도폭발 - 최동주 집사
- 주차 - 김주홍 집사
- 크리에이티브 - 김병수 집사
- GNMA - 주용중 집사
- MOD(사역박람회) - 이완희 집사
- 구제 - 지지영 권사

■ 프로젝트팀장:

- 50년 교회사 - 정광묵 장로
- 건물관리 - 김병인 장로
- 계수 - 정낙성 집사

- 고저 - 최재호 집사
- 교내봉사 - 강덕규 집사
- 교육행정 - 김교식 장로
- 교회안전 - 김성규 집사
- 교회학교: 교육지원 - 천승현 집사
- 교회학교: 소망부 - 김종곤 집사
- 교회학교: 스페셜프로그램 - 정인주 집사
- 교회학교: 아기학교 - 현승원 집사
- 교회학교: 유아부 - 윤태경 집사
- 교회학교: 유년부 - 안지호 집사
- 교회학교: 유아부 - 김도형 집사
- 교회학교: 유치부 - 김중현 집사
- 교회학교: 찬양 - 케빈마 집사
- 교회학교: 체크인 - 안경수 집사
- 교회학교: 초등부 - 김정범 집사
- 교회학교: AWANA - 이근제 집사
- 교회학교: BYM(고등부) - 박준경 집사
- 교회학교: BYM(중등부) - 최호경 집사
- 교회학교: CIM - 이준혁 집사
- 교회학교: K-1 - 황대경 집사
- 대외교섭(CM, EM) - 여흥평집사
- 디아스포라 - 박원규 장로
- 베델기도사역 - 양승화 집사
- 베델기도학교 - 이봉운 집사
- 베델뉴스 - 김경자 권사
- 베델동산 - 김병주 장로
- 베델워십 - 안성희 집사
- 베델인코리아 - 유미경 권사

- 베델라이어 - 오은옥 권사
- 부흥회(2회) - 정병화 집사
- 사택관리 - 홍대원 장로
- 상조 - 김재호 집사
- 새생명축제 - 김성균 집사
- 선교: 미디어 - 이우용 집사
- 선교: 소식 - 손석환 집사
- 선교: 안경사역 - 김윤근 집사
- 선교: 행정 - 황세현 장로
- 선교: 물품 - 이계석 집사
- 선교: BAM 커넥트 - 허용진 장로
- 선교:BAM 훈련 - 장지봉 집사
- 선교: Hiswill - 김태현 장로
- 선교관 영접 - 박정화 권사
- 선련: 훈련 - 박지학 집사
- 셀 - 김학남 집사
- 소망/오케스트라 - 최신 권사
- 아침 영상 메시지 - 김미연 권사
- 양로병원 - 김광식 집사
- 예배FD - 방모세 집사
- 예산조정 - 이상원 집사
- 예향 - 박혜성 권사
- 웨딩 - 주은주 권사
- 유스/오케스트라 - 정병화 집사
- 음향 - 이광수 집사
- 의무/양호 - 박규희 권사
- 의전 - 이성희 권사
- 일어예배 - 김민수 집사

- 입양아/포스터케어 - 박성규 집사
- 장학사역 - 김종학 집사
- 조찬사역 - 이명환 집사
- 주보출력 - 백권기 집사
- 주일예배 / 미디어 - 박영선 집사
- 주일예배 1부 - 이선갑 장로
- 주일예배 2부 - 이상노 집사
- 주일예배 3부 - 지종필 집사
- 주행 - 이양수 집사
- 차량 - 심진규 집사
- 통역사역 - 김원용 집사
- 한국학교 - 윤주원 장로
- 행사지원 - 윤계옥 권사
- 헵사바/특별예배 - 최두현 집사
- 홍보 - 박호성 집사
- 화요 큐티(올림) - 박은혜 권사
- 훈련: 리딩지저스 - 김진환 집사
- 훈련: 신학강좌 - 황인수 집사
- 훈련: 제자훈련 - 이승호 집사
- B+B(Beyond the Blue) - 전정례 권사
- BAM - 이석희 장로
- IT - 송용훈 집사
- OICOS - 변 진 집사
- QTin - 김광영 장로
- Recycling - 윤대호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은혜/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온유/예배/말씀: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배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배채플: 이형석 목사
- 예배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배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중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영관: 오춘란

사역광고

리딩지저스

새해를 맞아 2년 차를 맞이하는 '리딩지저스'를 시작합니다. 리딩지저스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일 년 일독 하도록 돕는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눅 24:27, 요 5:39). 온 교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쓰인 목적대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2025년과 동일하게 수요예배 설교 본문이 리딩지저스와 연동되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독 방학 주간(연 5회)에 특강(수요예배 시)과 소그룹 대면 모임을 가짐으로 통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리딩지저스의 장점

- 성경 통독표를 따라 매일 3-6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 어느 본문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매주 1회, 한 주 동안 읽을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10-13분)을 제공하며, 또한 매일 그날 읽을 성경 본문에 대한 요약 해설을 제공합니다.
- 소그룹 편성(5-8명 단위)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뒤처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 수요예배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요예배 설교 본문은 리딩지저스 통독표와 연동됩니다.



- ▶ 성경 통독 기간: 1월 5일(월)-12월 19일(토)
- ▶ 오리엔테이션: 1월 14일(수) 수요예배 시간 중, 본당
- ▶ 신청 기간/방법: 1월 4일(주일)부터, 코트 야드 부스 및 QR 코드 (QR 코드를 통해 사인업 하시거나, 안내 부스에 비치 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문의: 김진환 집사 (714)800-396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월)	1/11: ①부-윤주원 ②부-김재훈 ③부-황세현 ④부-나승호
	1/18: ①부-석승진 ②부-이종선 ③부-박성남 ④부-윤세희
	1/25: ①부-이해원 ②부-이석희 ③부-송석원 ④부-김태원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월)	1/10: 엘새	1/17: 김정범	1/24: 엄대석	1/31: 박상범
강단꽃(1월)	1/4: 신옥조, 장석우	1/11: 윤주원, 이미옥	1/18: 김 희, 장다혜	1/15: 장다윤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 내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MI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신년감사예배/2026 새생명축제 1차 VIP작정 'Come& See 50!'** 오늘 주일(4일)은 신년감사주일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도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 11일 주일 1-3부 예배에 2026년 새생명축제 'Come and See Again' VIP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엘리야 특별새벽기도의 열매로 한영혼을 생각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 특별부흥회** 2026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주신 특별한 비전 'Come & See 50'가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와 특별부흥회를 베델의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오명찬 목사, 윤대혁 목사
 일시: 1월 5일(월)-8일(목) 주중 오전 5시
 <엘리야 특별부흥회> 강사: 이진수 목사
 일시: 1월 9일 (금) - 11일 (주일) 금 오전 5시, 토 오전 6시, 주일 1-3부

◆ **MY ONE PRAYER 온라인 신청** 2026년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 기도제목 받습니다. 엘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로 기도 제목을 적어 넣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전교인 금식기도 릴레이 참여 안내** 담임목사님의 수술 일정이 포함된 1월 둘째 주 한 주간, 성공적인 수술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금식기도 릴레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한 끼의 금식, 한 시간의 기도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정: 1월 11일(주일)-1월 17일(토)
 마감: 1월 10일(토) 오후
 신청: QR 코드를 스캔 후 구글폼 신청서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선택
 방법: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지정된 시간에 기도, 기도문 및 묵상 자료는 별도 발송 예정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수요저녁예배 일정 안내** 수요저녁예배는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로 다음 주 1월 7일(수) 쉼을 가지고, 다음 주 1월 14일(수)에 다시 드려집니다. 새해에도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한 분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프로젝트팀장 모임** 2026년 사역박람회(MOD)준비와 전반적인 재정 사용에 관한 공지를 위한 프로젝트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6면 참고)
 일시/장소: 1월 14일(수) 수요저녁예배 후, 본당

◆ **리딩지저스 모임** 새해를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경 읽기 '리딩지저스'(1년 1독)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통독은 1월 5일(월)부터 시작되며, QR 코드 또는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6년도 통독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문의: 김진환 집사 (714)800-3968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양육반, 전도폭발, BAM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월 25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교회 버스 운전면허 교육 클래스 신청 안내** 교회 차량팀에서 교회 버스 운전 봉사를 위한 버스 운전 교육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필기시험 준비부터 실기시험 교육까지 교회에서 지원하며, 선착순 15명 모집합니다.
 첫 모임: 1월 18일(주일) 오후1시 / 본당 2층 컨퍼런스룸 (신청: QR 코드)
 문의: 심진규 집사 (714) 715-6308 / 장항령 집사 (818) 741-0408



◆ **소망 오케스트라 악기 도네이션** 소망 오케스트라에서 사역에 사용될 바이올린(3/4, Full 사이즈) 및 첼로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최신 권사 (949)331-5169

◆ **QTin 1월호 판매** 2026년 1월 월간 국/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새해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1월 10일(토)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 구독 할인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qtin.org)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시 Lawrence Chu/Heidi Cho 성도의 아들 추예준(Brayden)과 3부 예배 시 이육성/김근혜 성도의 아들 이온유(Bennett)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복조 권사님(탁원균 집사의 모친, 임세원 집사의 시모)께서 12월 27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ose Who Received a Second Chance

(Jonah 3:1– 10)

1. What would you call the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city of Nineveh? Read the passage and compare it with records of the Pyongyang Great Revival in Korea. (v. 4–9)
2. What was God's strategy for this revival? (v. 2; Ref: Gen 12:1–2, Matt 28:18–20)
3. Why must the gospel be cross-cultural (multicultural)?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share your thoughts. (Ref: Jerem 29:4–7)
4. What kind of people does God use as the main actors in revival? (v.1) Share the reason with your cell group.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